

[기고] 청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길

충주농어촌공사 총주제천·단양지사장 | 승인 2025.08.28 19:02

기고

충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충주(忠州)'라는 이름에는 '나라의 중심'이라는 중원(中原)의 의미가 담겨 있고, '충(忠)'이라는 글자에는 충성과 정성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신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의 지명에 깃든 의미는, 우리 지사가 지향하는 청렴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많은 농업인이 땀 흘려 일구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사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업용수의 공급과 관리, 농지은행사업의 시행, 농어촌 공간개발 등을 추진하며 지역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나 일탈이 곧바로 지역 농업인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모든 업무에 앞서 '청렴'이라는 기준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사에서는 전 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하계휴가 기간 등 부패 취약 시기에는 반부패 청렴 주간을 운영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부패·비위행위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위있는 공직생활'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전 직원이 올해의 청렴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통과 참여 기반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내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접수된 의견은 검토하여 현장에 즉시 반영하거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본부, 본사에 제안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 직원들은 청렴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로 정착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의 주요 고객인 농업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청년농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대의원회, 수질환경보전회 등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사업추진과 업무 전반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청렴은 말보다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곧 우리 공사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지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세로 행동해야 합니다.

청렴은 조직 전체의 품격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더 나은 농어촌, 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묵묵히 본분을 지키는 태도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청렴을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청렴을 우리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그 열매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승민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